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67> 소동파 (중)

“이 산승이 질문을 하나 하겠소. 대답하면 앉게 해주겠지만 대답을 못하면 그 옥대를 풀어주세요.”

법거량으로 내기를 하지는 것이다. 이미 나름대로 전 분야에 걸쳐 일가견을 갖춘 그였기에 자신있게 뛰어들어보고자 했다.

“거사는 조금 전에 이 산승의 육신을 빌어서 앉겠다고 하셨는데, 육신이란 본래 공(空)이며, 오온(五蘊) 역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사는 도대체 어디에 앉겠다는 말이오?”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옥대를 풀어놓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불인 선사가 좀 미안했던지 행각할 때 입던 누더기를 그에게 선물했다. 벼슬의 상징인 옥대를 버리고 수행을 의미하는 남의를 얻어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사람의 위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소동파가 경구(京口)에 왔

날이 찾아왔다. 다시 관복을 입고서 맞이해야만 하는 공무로 온 판리다. 하도 다급해서 승복을 속옷삼아 그 위에다가 그대로 관복을 걸었다. 멧찍은 표정을 지으며 변장로에게 사과하듯 변명하듯 말했다.

“속에는 승복을 입고 겹에는 관복을 걸었으니 마치 양민을 억눌러 천민을 만든 꼴입니다.” 짚에 와서 제대로 단칼도 못하고 도리어 관료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빗댄 말이다. 자상한 변장로는 오히려 위로해 준다.

“의호도 적은 일이 아닙니다. 영축산에서 부처님의 부족을 잊지 마소서.”

관리관 받드시 부침이 있기 마련이다. 잘 나갈 때야 나는 세도 떨어뜨리지만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다. 동파라고 해서 유배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는 시대는 아니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1097년

담이국(儻耳國)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에 앞서 1904년



법거량서 불인 선사에게 쾌한 동파 옥대 풀어주고 누더기남의 얻어가

을 때 금산사 주지인 불인 선사가 감을 건너 찾아왔다. 이번에는 동파가 역공을 했다.

“조주 스님은 왕이 찾아와도 선상(禪床) 위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금산사 스님께서는 무슨 일로 강까지 건너면서 찾아왔소?”

속마음을 들켰을 때는 예뻐서 표현할 수 밖에 없다. 글쟁이에게는 글로 대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순발력은 필수.

“그 옛날 조주 스님은 겸손이 부족하여 선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두 입금을 맞았지만 이 모든 세계를 선상으로 여기고 있는 금산의 무량한 모습만 하겠는가?”

문백으로 보건대 무슨 화주할 일이 생기기 싫은데, 손 벌려라 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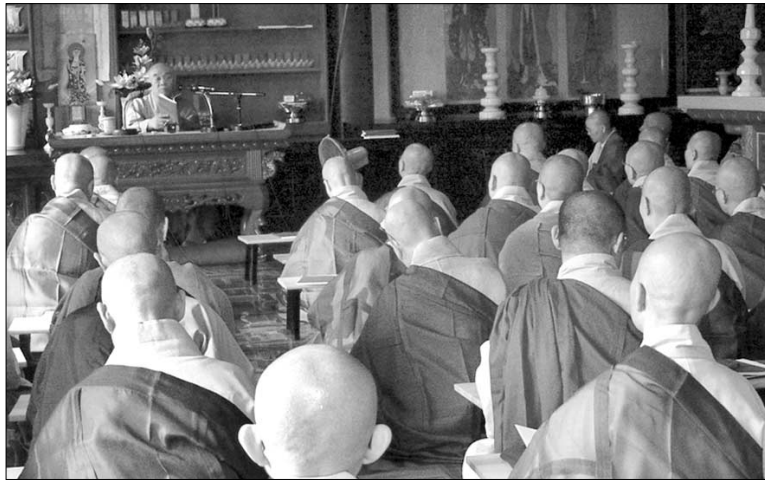
소동파가 1094년 가을 남화사(南華寺)를 지나게 되었다. 절에 간 길에 편안히 걸 겸해서 관복을 벗어놓고 승복으로 갈아입었다. 변(變)장로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앉아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공식승

사주(泗洲)대사 초상화에 찬(讚)을 써준 적이 있다. 그 찬의 마지막 구절이 ‘오바’ 된 것 같다. “... 동파의 찬(讚)을 보는 수많은 사람이 모두 성불을 하리라.”

그런데 유배갈 때 그 고을 수령이 직접 와서 위로를 말을 전하면서 자기 아내의 꿈이하기를 해주었다. “내 아내 심씨가 정성껏 사주대사를 섬기는데 하루저녁 꿈에 사주대사가 이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72일 후에 소동파와 함께 간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72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어찌 정해진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위로를 하는 건지 열장을 지르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미 마음을 비운 동파는 말했다. “세상일이란 어느 것 하나 정해진 인연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덕을 지은 것이 없는 내가 사주화상과 동행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전생의 인연 아니겠습니까?” (계속)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이 서울 대승암에서 <유식삼십승> 강의를 하고 있다.

유식(唯識). 초심자는 물론이고 불교를 웬만큼 공부한 불자라 하더라도 ‘유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고개를 흔들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사실 불교학 가운데 ‘유식’ 만큼 어려운 분야도 없다. 특히 유식학의 요체인 <유식삼십승>은 명쾌한 해설 없는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혜거 스님(금강선원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조계종 교무원의 서울불교전문강당 졸업생들의 모인인 ‘경전 연구회’가 6월 9일 서울 대승암에서 혜거 스님을 초청해 <유식삼십승>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유식삼십승>은 어떤 것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혜거 스님 강의와 인터뷰를 종합해 정리했다.

● <유식삼십승>은 무엇인가?

<유식삼십승>은 유식학의 모체다. 4세기 인도인 무착보살이 뼈대를 세우고 무착의 동생인 세친이 완성했다. 이것을 해석한 것이 <성유식론(成唯識論)>이다. <성유식론>의 분량은 방대하다. <유식삼십승>은 5년4구로 된 30개 송으로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유식학의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세상이 생겨나면서부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한 것은 주재자(主宰者)가 있는지, 또 주재자가 누구인지였다. 부처님께서는 주재자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며,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셨다. 나를 잊게 하거나 또는 나를 유지시키는 실체는 바로 마음인데, 그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주재자는 마음이며, 그 마음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불생불멸하는 절대 마음이다. 근본마음, 인간의 모든 업이 저장되는 심왕(心王)이 있는데, 이것을 제8식(識)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둘째는 인간 생활에 가장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잠재된 의식을 제7식 ‘말라식’이라고 한다. 셋째는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부터 나오는 마음 즉, 바깥세계를 사유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제6식이라고 한다. 마음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것을 ‘3식’이라고 한다. ‘나’의 모든 주체는 오로지 이 3식 뿐인데, 그 이치를 밝힌 것이 바로 <유식삼십승>이다.

● ‘유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마음은 실체는 본래 아무 것도 없는 자리인데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여서 내 마음이 된다. 즉, 경험과 지식이 ‘마음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지금까지 체험하고 배웠던 것, 내가 쌓았던 관념과 지식을 빼고 빈 자리 그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 래야 제대로 볼 수 있다.

만물을 천차만별로 보는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어떤 관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관념을 모두 버리고 보면 똑같이 보일 것이다. 상량인식이 서로 같지 않은 이유는 자기의 관념대로 본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사물을 제대로 보게 되면 삶이 달라진다.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삶은 온전히 못하며, 행복과 불행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유식은 어떻게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생활과 밀접한 것이다. 우리는 제6식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산다. 하지만 여차

빈 마음으로 사물을 보라

혜거 스님에게 듣는 ‘유식삼십승’

피 사는 삶이라면 7식도 쓰고 8식도 쓰자고 작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발심(發心)요, 수행자의 자세다.

●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요건

유식을 이해하려면 교학적 태도도 중요하지만 실참수행을 병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심소(心所)·마음자리 또는 마음(心)이 마음에 그렸다. 사물을 분별하는 의식이 있는데, 수행한 사람의 의식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의 의식에는 차이가 있다. 수행하지 않은 사람의 의식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대부분 잊어버린다.

수행을 하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잊지 않는다. 수행한 사람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의 의식은 이렇게 다르다. 수행을 하면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달라진다. 제7 말라식이라는 것은 잠재의식, 예지력을 말하는데, 이것은 오관(五官, 눈 입코피부귀)에 가려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수행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예지력이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것을 깨내 쓸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유식이다. 유식은 이렇게 실참수행을 독려하는 가르침이며, 수행은 오관을 잠재우는 훈련이다.

● 보다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사실 팔만대장경은 모두 유식을 가르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강경>에서 갖가지 상(相)을 없애라고 하는

데, 이것은 관념과 선입견을 벗으라는 가르침이다. <화엄경>의 첫머리는 ‘일체유심조’다. 이처럼 모든 경전들이 마음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경전을 보면서 이런 가르침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착보살이 그것을 깨서 ‘이것이이다’ 하고 드러낸 것이 유식이다.

모든 불자들이 경전을 볼 때 마음 다스리는 법, 마음 조절하는 법이 경(經)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볼 때마다 마음이 바뀐다.

이 개념을 갖지 않고 보기 때문에 경 따르, 마음 따르인 것이다. 유식은 이론적으로는 어렵지만 경을 읽을 때부터 인식하고 공부하면 어렵지 않다.

유식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수행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바람직한 것은 둘 다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수행적 측면에서의 유식을 하는 것이 낫다. 유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수행을 위해서다. 수행을 하면서 유식을 이해하게 되면 저절로 금강한 점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문적 탐구로 이어질 것이다.

글·사진·한명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곤
전환주사는 본래는 인내 지력을 보태드립니다.

지금이나 말로 당시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환문의 상담 형식**
서울시 중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세상 주재자는 나, 내 실체는 마음

경험·지식이 쌓여 ‘마음화’ 하는 것

유식 이해하려면 실참수행해야

이화 청기와 공장

● **KSS형 청기와**
장당 3,500원 도착 (하차별도)

● **한식 검정 시멘트기와**
장당 1,500원 도착 (하차별도)

문 041)554-0112(천안)
의 011-9820-0112(직)

60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장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일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물론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드립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전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신규 동참자 특별 선물 ※
청견스님께서 밝은 기운으로 한 호흡에 握筆로 쓰신 “佛”자 붓글씨,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염송 TAPE

◆ 날 짜 : 2006년 6월 24일 (토요일) 저녁 9시
2006년 6월 25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담뱃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물병 수렴복(하의)2매, 간단한 간식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하산마승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로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교육 도량 **법왕정사**

☎ 청견스님 011-9088-9449

☎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1번 출구 근처역방향 100M GS광진주유소 2층 지하철 5호선 군자역 6번 출구 어린이대공원역방향 200M GS광진주유소 2층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산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미 회회전 50M 경유빌딩 4층

※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하계 특별수련안내

참나의 지복을 체험하는 여정

7, 8월 기간에 하계 순일프로그램 4단계 전과정을 24박25일 코스를 2차에 걸쳐 진행 합니다.

◆ 1차 : 7월 8일 - 8월 1일
◆ 2차 : 8월 2일 - 8월 26일

교육내용

- 무의식에 저장된 죄의식, 분노의 감정들을 녹임
- 미세한 감정들과 몸이 정화되는 과정
- 대상과 하나되어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과정
- 대상을 넘어 무심(심매)에 드는 과정

프로그램지도

- 순일 선생 : 현, 순일수련원장
- 전, 정진세계원 ‘삼매교살’ 강의
- 전, 미네사 금강경 강의
- 전, 부산 자량선원 금강경 강의
- 지서 : 1.삼매 2.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http://www.soonil.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련문의 및 신청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수련문의 및 신청”이나 전화 031)771-9765 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일명상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계류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경허수, 목 디스크, 오십견 (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 (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을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중앙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클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월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클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